

The Market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시황 코멘트 | 2024. 11. 18

주간 마켓 스펙트럼: 머스크 트레이드, 정부효율부(DOGE)의 정체

투자전략팀 | LS.Research@ls-sec.co.kr 황산해 | sh.hwang@ls-sec.co.kr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관련 내러티브에 따른 변동성 확대. IT지출 감소, IRA 축소, 안티 백신 등의 이슈 존재하는 상황에서 파월의장과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금리 상승, 주식시장 전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

반도체, 2차전지 등 국내 대형주의 취약점 확인한 주간

삼성전자(-6.1%, 1W), SK하이닉스(-11.2%), LG에너지솔루션(-6.9%), 삼성바이오(-6.7%) 등 시총 상위 업종이자 높은 해외 의존도를 가진 반도체, 2차전지가 대외 불확실성에 부진. 이는 일본 종시에서 미쓰비시, 히타치, 리쿠르트 등의 상위 종목들이 비교적 높은 자국 매출 비중으로 불확실성을 버텨준 것과 대비. 여타 트럼프 트레이드가 되돌려진 가운데 HD현대인프라(+1.2%), SG(+3.0%) 등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강세. 트럼프 내각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 부각되며 디아이씨(+18.2%) 등 테슬라 벤류체인과 레인보우로보틱스(+3.2%) 등 의 로봇, 우주항공, 자동화와 같은 소위 머스크 트레이드가 출현

정부효율부는 클린턴 정부 NPR과 유사, 지출삭감이 아닌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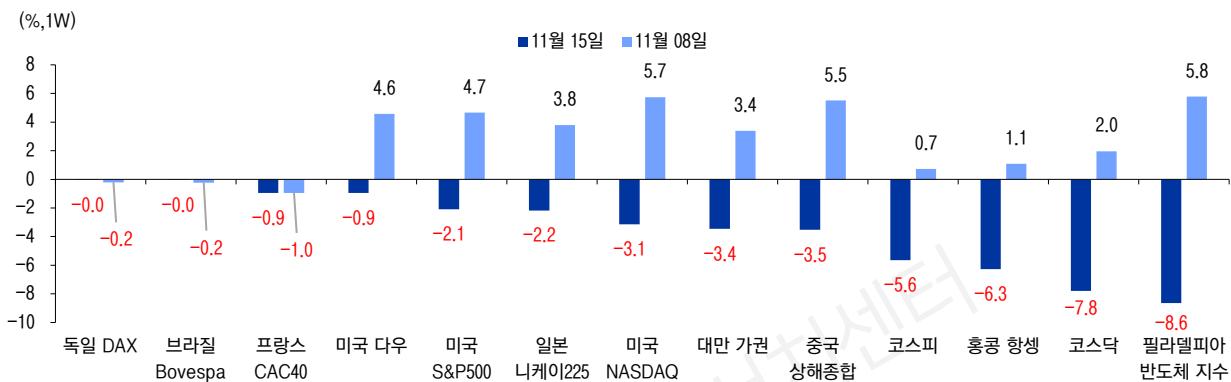
방산 및 IT의 정부 지출 삭감 우려를 촉발하며 관련 업종에 글로벌한 충격을 준 정부효율부(DOGE)와 일론 머스크.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한 여러 가설이 존재하나 '93년 클린턴 정부 출범과 함께 등장한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의 케이스를 참고할 필요. NPR은 클린턴의 재정개혁 중 증세와 함께 병행됐으며 40만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 감축을 이뤄냈던 대규모 행정효율화 프로젝트. 당시 고어 부통령을 총괄로 집권과 동시 TF 창설. 6개월 뒤 384개 권고사항, 1,250개 이행계획을 포함한 행정개혁 보고서를 발간. 1차적으로 천억달러의 비용절감 목표로 성과중심 평가체계, 규제제도 개혁, 유연화, 전자화 등 다방면의 행정 개혁 및 구조조정 단행 (트럼프 DOGE와 비교는 표1 참고)

현시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NPR의 1)전자화 2)국방 효율화 그리고 3) DOGE에서 머스크의 존재 이유. NPR 사례를 고려한다면 DOGE의 존재 의미는 재정축소를 통한 비용절감이 아닌 AI, 자동화 등의 기술을 도입한 행정 효율화와 구조조정일 가능성이 높음. NPR은 당시 아날로그 방식이 만연했던 행정 시스템에 전자송금, 업무전산화 등 IT기술을 대거 도입. 국방도 효율화 및 디지털화로 가장 큰 규모의 감원이 진행됐을 뿐 투자나 구매의 위축은 아니었던 회고 존재. 또한 축소가 아닌 효율화가 목표였던 만큼 IT 보편화 지원엔 비용을 아끼지 않음. 현재 머스크는 리얼월드 AI, 로봇, 자동화, 우주/방산 등의 기술과 트위터 인수 당시 구조조정 경험을 보유한 만큼 기술을 통한 구조조정에 최적화된 인사. 아직까지는 DOGE의 등장에 따른 재정/투자 축소 우려를 완전히 지울 순 없음. 그러나 정부주도의 신기술 보편화에 따른 시장 확대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할 확률

W26 섹터 별 주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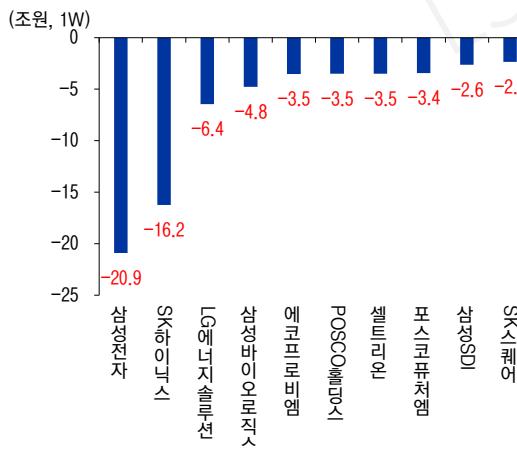
	1W	2W	3W
코스피	-5.6	0.7	-1.6
코스닥	-7.8	2.0	0.2
조선	2.6	14.0	-7.7
운송	0.8	-1.1	-0.2
통신서비스	0.0	-3.6	-0.2
유럽리티	-0.2	-0.1	-0.8
미디어, 교육	-0.5	3.3	-0.8
자동차	-0.6	-2.2	-2.1
소프트웨어	-0.8	0.4	0.8
기계	-2.9	8.3	-2.6
필수소비재	-3.3	3.6	0.8
상사, 자본재	-3.7	4.7	-1.9
호텔, 레저서비스	-3.8	-0.1	4.8
증권	-4.0	0.8	-1.8
은행	-4.0	2.2	-6.6
건설, 건축관련	-4.7	2.9	-0.5
보험	-5.2	0.1	-1.1
건강관리	-6.0	2.9	-3.3
화장품, 의류, 완구	-6.4	0.5	-0.2
디스플레이	-7.0	-1.1	1.6
에너지	-7.8	-5.8	2.0
소매(유통)	-8.1	-1.9	2.3
반도체	-8.1	1.1	-0.1
비철, 목재 등	-8.9	8.9	-13.3
IT 하드웨어	-9.9	-0.5	-1.2
IT 기전	-11.6	-5.4	2.4
철강	-12.7	-3.7	0.3
화학	-13.6	-5.1	0.3

그림1 높은 금리에 되찾은 이성, 글로벌한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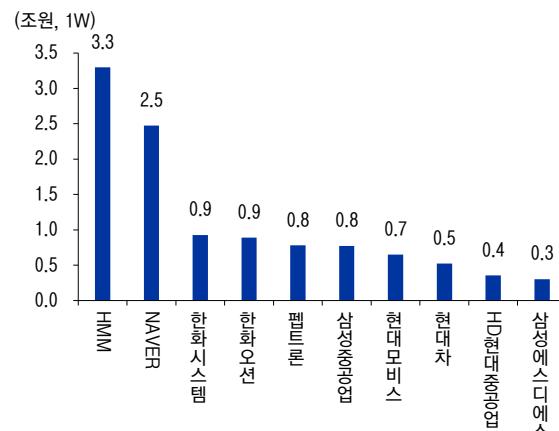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간 시총 변화, 반도체/2차전지가 끌어내린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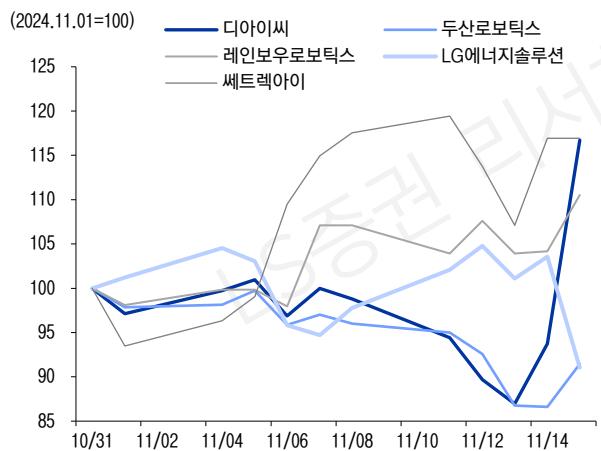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해운, 조선, 건설 장비 등의 약진 있었으나 역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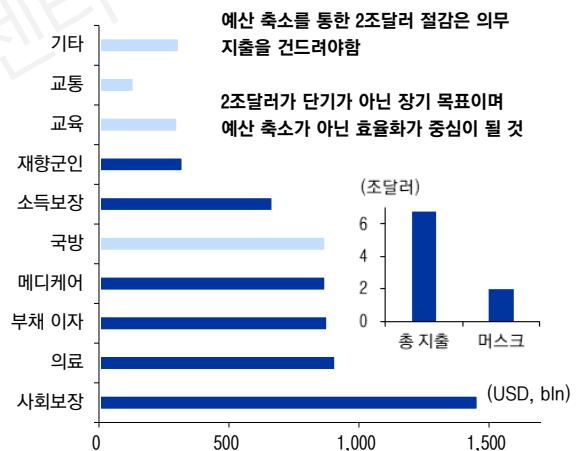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트럼프 → 머스크 트레이드의 시작?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목표는 재량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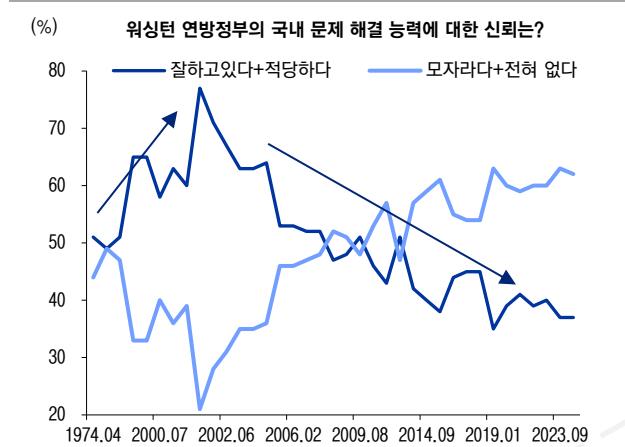


주: 국방, 교육, 교통, 기타 등 재량지출 포함 예산 밝게 표시

자료: 미 의회 예산국,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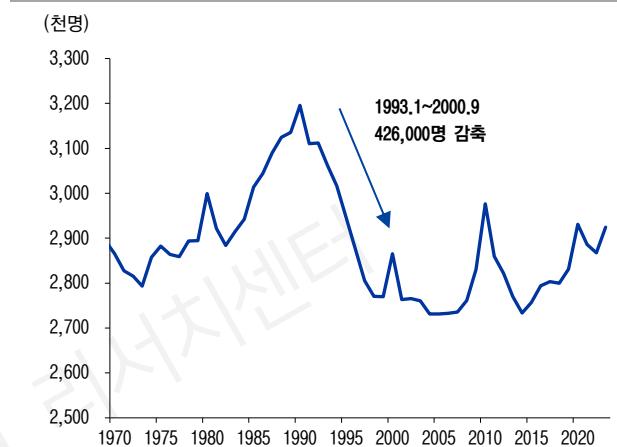
트럼프-마스크의 DOGE, 클린턴-고어의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

그림6 연방정부 신뢰도 조사 추이



자료: Gallup,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클린턴 정부 연방 공무원 수 추이



자료: Fred,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목적과 명분이 같은 NPR(1993)과 DOGE(2025)

	클린턴 정부 (1993~2001) NPR (National Performance Review)	트럼프 2 기 (2025~)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명분 및 의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잘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정부 (Government to work better, cost less, and deliver results Americans care about)	관료주의의 해체, 과도한 규제 삭감, 낭비적 지출 축소, 연방 재구조화 (dismantle government bureaucracy, slash excess regulations, cut wasteful expenditures and restructure federal agencies)
주도 인물	앨 고어 부통령 및 종견공무원 250 명, 자문관 등 외부 컨설턴트 참여는 X	일론 머스크, 바嬖 라미스와미 구인공고(?): 주 80 시간, 높은 아이큐, 혁명가 등 조건
목표	비용 축소, 행정 혁신, 관료주의 타파	일론 머스크: 2 조달러 감축(기간 언급 X), 연방기관 428 개→99 개
형성 과정	클린턴 취임 이후 연방정부 평가 및 개혁안 작성을 위한 TF 염으나 추진과정의 지휘 기관 필요로 독립 상설기구로 존속	트럼프 대선 유세 중 언급 12 일 머스크와 라미스와미를 수장으로 내정하며 공식 '언급'
주요 내용	-14 개 부처 중 13 개 부처 효율화, 7 만 8 천 명 가량의 관리자를 포함 약 43만명의 연방 공무원 축소 -64 만 pg 분량 내부 규칙 개편/간소화, 2 천개 현장사무소 폐쇄 등 <u>프로젝트 주요 내용</u> 1.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 2. 규제제도의 개혁 3. 공무원 책임과 권한 부여 4. One-Stop 정보 및 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 5. 주요 대민부서 집중관리	트럼프 - "정부 외부에서 조언과 지침 제공, 백악관, 관리예산국과 협력해 대규모 구조 개혁" 일론 머스크 - "낭비되는 공무원 인사평가 시스템 도입, 활동 투명성 극대화 등" 라미스와미 - "연방 인력 재배치, 최대 75% 감축, 작은 정부 등"
결과	- 총 권고사항 중 2/3 이행, 30 년만의 연방 정부 신뢰도 상승세 - 임기 중 1400 억달러 ~ 5 년간 1300 억달러 감축 (추정치 다수 존재)	-
포인트 1: IT 기술 도입	행정 효율화와 생산성을 위해 IT 기술 활용한 전자정보서비스 구축 "Electronic Government" 가치 아래 전산망, 전자 행정 대폭 확대 비용 절감만이 아닌 국가적 IT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 진행 Eg. 모든 학교 및 도서관 인터넷 및 정보 접근성 -4 억달러 지원	행정 업무의 AI 및 자동화 기술 적용과 국가적 AI 기술 도입의 초석 마련할 가능성 존재 투자 축소가 아닌 효율화의 방향일 가능성 높음
포인트 2: 국방 개혁	인건비 감소, 디지털화, 효율화 이니셔티브 등으로 비용절감 대규모 인력 감축 있었으나 NPR에 따른 무기 구매 및 투자 위축은 거의 없었던 평가	현재 연방 정부 노동자 중 60%가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소속 <u>머스크의 로봇, 자동화, AI 기술 활용</u> 을 통한 효율화 및 인력 감축

주: 트럼프 2기 파트는 현 시점 언론 내용 취합, DOGE 관련 확정 사항 X

자료: Brookings, 외신 종합,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황산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